



◁구미 지역 신행 및 직장불교단체의 신행요람으로 탄생할 구미불교대학(회암탑사) 조감도.

일터불심 불교회관서 '고성장'

구미불교대학 신축허가... 내년초 첫삽 시청·경찰서·김천직장불자 신행요람

지역 포교의 거점 '불교회관'이 직장불자회의 신행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구미 지역에 '직장불심'의 신행요람이 생긴다. 구미불교대학(학장 범등)은 최근 구미시청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미불교대학(회암탑사)' 신축 허가를 받고, 내년 초

에 첫 삽을 뜰 계획이라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구미불교회관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인 구미시청불자회, 구미경찰서 불교회, 인근 김천직장불교연합회 등의 신행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불교대학장 범등 스님은 "회관 건립의 추진은 이 지역 직장 및 신행단체들에게 활동 공간은 물론, 신행과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재가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 불교회관의 '일터불심 키우기' 노력은 전국의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재 대전 백제불교회관을 비롯해 대구 불교회관, 부산 불교회관, 전주 전북불교대학, 진주 불교회관, 울산 종합불교회관, 해남 불교회관 등은 법회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사업연합회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들 불교회관

은 미장립 불자회 결성의 산파역을 맡거나 지도법사도 추천해 신행의 토대를 다지도록 돕고 있다.

최근 들어 직장불자회도 지역 불교회관

대전 백제불교회관은 지금 대전불교인론인회, 둔산경찰서 불자회, 연예인불자회 대전지부,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대전지회 등 30여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진주불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및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회, 불교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 등 부산의 주요 직장직능 및 신행 단체들이 적을 두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직장·직능 담당 박민정 씨는 "직장불자회와 지역 불교회관의 한 동지 틀기는 그동안 활동 공간 부족 및 지도법사 부재 등의 직장법회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직장불자회가 지역 불교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실무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대전 등 지역불교회관, 신행·포교활동 중심축

이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한 건물에 법당, 시민선원, 사무실 등이 들어선 회관은 지역 신행단체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불자회원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시기 때문이다.

자선안회가 결성을 주도한 진주불교회관에는 진주MBC 법우회, 진주교도소법우회, 경상대학교병원불자회, 진주시청불자회, 진주의료원불자회 등이 등지를 들고 있다. 또 부산불교회관에는 부산MBC 법우회,

우리불자회는요

포항교사불자회

우리 포항교사불자회는 1989년 2월에 창립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포항에 거주하는 교사들(유·초·중·고등학교) 80여명으로, 종파를 가리지 않고 모여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달 2, 4주 월요일은 조계종 포항축림사에서 종문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정기적인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의 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시아설(如是我說, 내가 본 부처님 말씀)'이란 법석 한마당입니다. 회원들의 교리공부의 장으로, 그간 배운 아함경, 반야심경, 금강경, 유식론 등을 회원 스스로가 연구해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밀도 높은 공부를 새로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런 문화재교육이 자연적인 포교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재교실은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의 문화재 및 불교 이론 강좌와 문화재 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포항 축림사에서 창립 법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교실은 불교교리 공부와 문화재답사를 통한 불교와 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 함양 외에도 우리 불자회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살려 학생상담 및 진로 상담도 겸하여 우리 불자회가 학생들의 친근한 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자회는 최근에 사이트 (<http://user.chollian.net/~lds900/pbt/index1.html>)도 개설했습니다. 사



◁11월 16일 문화재교실에 참가한 포항지역 청소년들이 불교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여시아설' 불교사상 강연 큰 자랑거리

문화재 교실·다양한 콘텐츠 '홈피' 운영

이 시작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여 6회를 맞은 불교사상강연회도 자랑거리입니다. 강연회는 덕망 높은 스님의 감로법과 우리 교사회원들의 열정이 어울려져 언제나 많은 청중이 운집했습니다. 또 포항 정애원(죽거노인 시설)에 매월 봉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적인 회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청소년 포교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교육활동이 우리 교사들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교실을 열었습니다.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바른 인식은 불교를 바르게 인식하는

이트에는 사이버 청소년 신행상담, 불교공부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바쁜 일과는 정기 법회의 참석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수행의 한 갈래라고 생각하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활동에 열심입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 문화재 교실, 학부형 문화재교실로 확대하여 포교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정애원 봉사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다른 단체와 연계한 포교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부와 정진에도 물론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지요. ■백벽 회장

광주광역시청불자회 중순계 발족

지도법사 현지 스님, 초대회장 이호준 국장

광주광역시청 불자회가 창립된다. 광주시청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송승중·자치행정과, 이하 창립준비위)는 11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12월 중순경에 창립 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창립준비위는 이날 모임에서 불자회 회칙을 마련하는 한편 불자회 총재로 향림사 조실 현운 스님을, 초대 지도법사로 광주광역시 사업연합회장 현지 스님(원호사 주지)을 위촉했다. 또 초대회장에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씨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

인 준비에 들어갔다. 창립준비위는 지난 9월부터 시청내 인트라넷을 통해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5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시청 내 1천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신입회

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내 130여 사찰을 순례하는 순회법회를 봉행해 지역 사찰간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창립준비위는 광주시 서구청 불

자회, 광주지방국세청 보리회 등과 합동 법회와 연합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열고, 향후 미장립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청 등 4곳의 불자회 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이호준 회장은 "그간 호남지역은 불교세가 약해 공무원 불자회 활동도 대단히 미약했다"며 "뒤늦게 불자회가 창립되는 만큼 우리 고장에 새로운 불교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양평 사나사서 송년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기지부(회장 임창홍·사진)는 11월 30일 경기 양평 사나사에서 2003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금천구청 불자회, 송년법회

서울 금천구청 불자회(회장 조정호·사진)는 12월 15일 구청 구내 식당에서 관내 사업연합회 스님 초청, 송년 법회를 봉행한다.

철북철 운영위원회 개최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회장 조진규·사진)는 11월 29일 서울 영등포 지역관리역 교양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3년도 사업 평가와 2004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관내 변호사 합동 천도재

서울동대문경찰서 불자회(회장 김중대·사진)는 11월 30일 서울 구기동 금선사에서 관내 변호사 89위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경산시청 법우회 수계식 봉행

경북 경산시청 법우회(회장 김두호)가 11월 15일 경산시청에서 수계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경산시청 법우회 수계식 봉행

경북 경산시청 법우회(회장 김두호)가 11월 15일 경산시청에서 수계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11대 총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큰 말씀

평생을 간직하고픈 책!

매일 읽어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법문들을 모았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도림 법전 / 조계종출판사 / 정가 20,000원

수행자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경이 될 책이다. - 한겨레

선승들의 대화법과 기풍을 일반인들도 짐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인화들이 듬뿍 담겨 있다. - 조선일보

수행자로서의 인간적 고뇌와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 문화일보

평생 참선 수행으로 일관한 정통 선승,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의 수행기. - 동아일보

빠를 낚는 수행담과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승들과 교유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담긴 책이다. - 대한매일

출가해서 중정이 되기까지 생사를 초월한 수행, 진리와 평화에 이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세계일보

통일법요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정가 30,000원

통일법요집은 각각의 사찰에서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계종단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최대한 의식집전에 편리하도록 꾸민 통일법요집은 미래 불교의식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Tel. 02 · 733 · 6390(대) / Fax. 02 · 720 · 6019